

손님 하나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손님의 자리를
비워드립니다

2021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Best Private Bank in Korea)

2021 글로벌 최우수 혁신 PB은행
(Most Innovative Private Bank in the World)



RACHMANINOFF SPECIAL

낭만의 절정,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영영복



지휘 합신의

Rachmaninoff |
Piano Concerto No.4
in g minor, Op.40
라흐마니노프 | 피아노 협주곡
제 4번 사단조, 작품번호 40

Rachmaninoff |
Symphony No.2
in e minor, Op.27
라흐마니노프 | 교향곡
제 2번 마단조, 작품번호 27

10.21
MON 7:30PM



고맙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심포니 S.O.N.G 이사진
BOARD OF DIRECTORS

이사장
문형주

부이사장
안정근

이사
송백규
이경혜
이주현
김희련

감사
김일규

낮은 소리
LOW VOICES

권상준
김태규
백수인
오승훈
윤정웅
장명식

2023 - 2024시즌 연 회원 후원자 명단

마에스트로 Circle

노루그룹
하나은행

마스터즈 Circle

(주)EG

말러 Circle

한영재
(유)세봉
(주)에프에스티
(주)티에사이

브람스 Circle

(주)디에스케이
(주)GFS
(주)골프존
어스빌리지

브루크너 Circle

김석수
신승일
전동규
(주)다진

슈베르트 Circle

김창석
이경혜
윤정웅
(주)면사랑
(주)세아제강
(주)제이씨케미칼
(주)풍산
영앤진세무법인

베토벤 Circle

김윤자
최영애
장원기
한태준
홍종관
(주)동효

쇼팽 Circle

안정근
송백규
최승식
(주)KNW

모차르트 Circle

서석호
신영만
양서윤
양세이
원장희
윤석애
전홍구
한수향
한정숙
엔피코리아
법무법인산경

하이든 Circle

고윤영
권영성
권용관
김성렬
김종혁
김호진
박명우
봉욱
신갑순
윤현숙
이근혁
이미영
이병권
장민경
장윤정
전인평
조백일
최승갑
최인규
한문성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

심포니 S.O.N.G

‘심포니 S.O.N.G(심포니송)’은 지휘자 함신익이 창단한 민간 주도 오케스트라입니다.
지휘자 함신익은 KBS교향악단, 대전시향 및 미국 유수의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거쳐
유럽, 남미, 아시아 등 다양한 오케스트라에서도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2014년 8월, 지휘자 함신익은 후원자들과 음악가들과 더불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Symphony Orchestra for the Next Generation>의 첫 자를 탄 <함신익과 심포니 S.O.N.G> 창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창단 이후 현재까지 심포니송은 뛰어난 연주력, 창의적인 프로그램, 광범위한 사회공헌 연주 등
차세대 오케스트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발전하며 각계각층의 폭넓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무한 책임이라는 함신익의 신념과 음악을 사랑하는 후원자들의 애정 어린 응원이 이뤄낸 결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MISSION

- 대한민국 오케스트라의 통상적인 운영 체계를 뛰어넘어, 민간기업과 개인들이 후원자 인 동시에 주인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 진정한 예술정신을 발휘하여 클래식 음악이 주는 고귀한 메시지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한다.
- 음악을 통해 따뜻한 기적을 이루고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나눔의 오케스트라로 자리 하여 지역사회를 활기치게 한다.

VISION

- 뛰어난 기량을 가진 음악가들이 입단하여 프로연주자로서 최대 5년을 활동하면서 다음 세대에 필요한 예술가로 성장하게 한다.
- 국내 최고의 홀에서 진행되는 고품격 ‘마스터즈 시리즈’를 통한 최상의 연주로 관객의 만족을 추구한다.
- 유의미한 해외 연주를 통해 국제적 트렌드를 리딩하는 선도적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VALUE

- 오케스트라의 효율적 운영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 한국 메세나 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에서 노루홀딩스와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였다.
- 서울시의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낭만의 절정, 라흐마니노프



PROGRAM

Rachmaninoff
(1873~1943)

Piano Concerto No.4 in g minor, Op.40

라흐마니노프 : 피아노 협주곡 제 4번 사단조, 작품번호 40

- I. Allegro vivace 빠르고 활기차게
- II. Largo 매우 느리게
- III. Allegro vivace 빠르고 활기차게

Intermission

Rachmaninoff :

Symphony No.2 in e minor, Op.27

라흐마니노프 : 교향곡 제 2번 마단조, 작품번호 27

- I. Largo - Allegro moderato 매우 느리게 - 조금 빠르게
- II. Allegro molto 매우 빠르게
- III. Adagio 침착하고 느리게
- IV. Allegro vivace 빠르고 활기차게



심포니송의 프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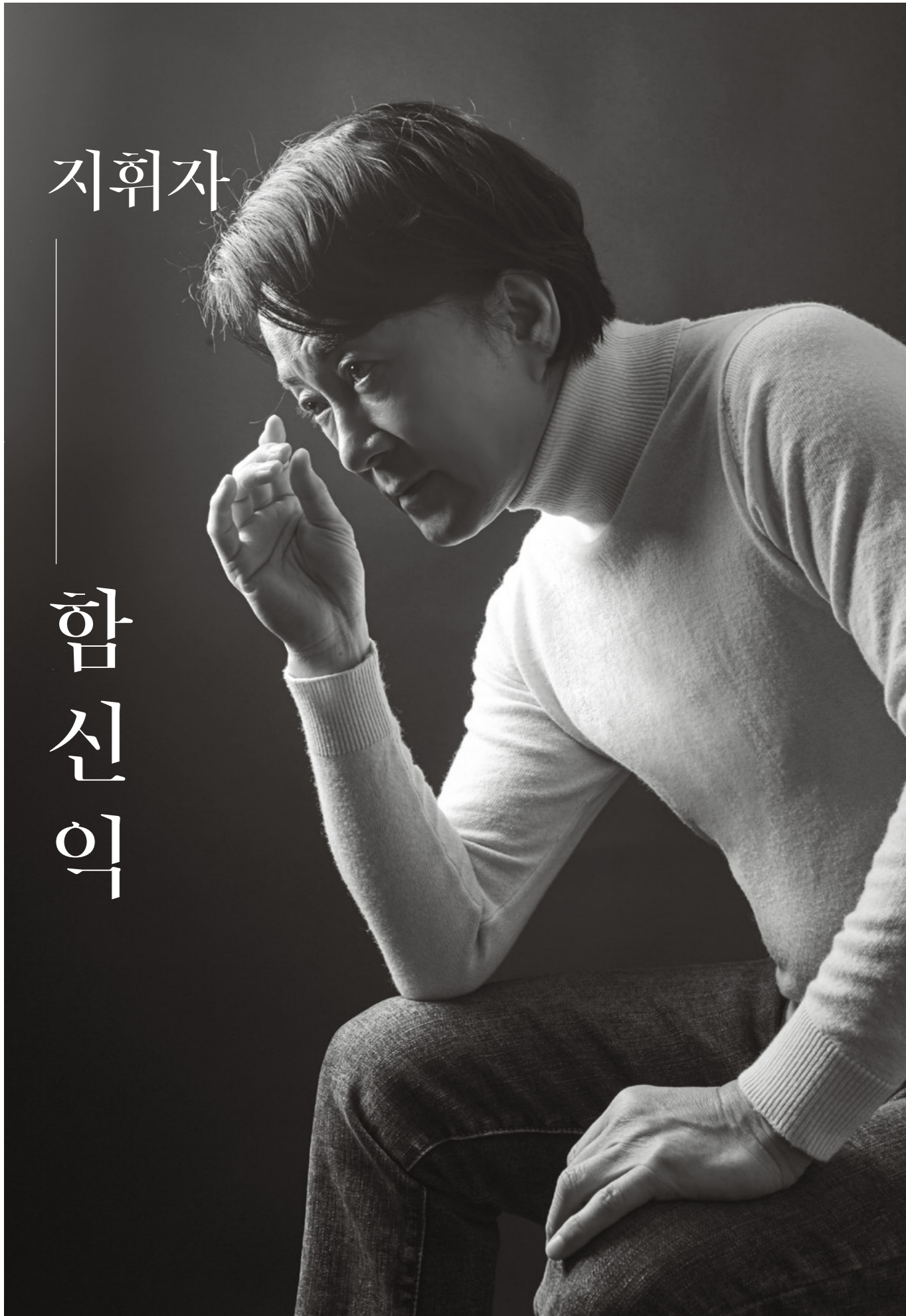


예술감독	함신익				잉글리시 호른	송보미			
바이올린	*송지원	박진형	강은실	문수빈	클라리넷	이환희 김민찬			
	이경미	김예람	김원영	김지연	베이스 클라리넷	김영호			
	김찬미	김희영	박지윤	방지원	바순	김윤지 김지혜			
	오하은	이지현	정예린	천나은	호른	에드워드 주혜준 조종현 김효정			
	최주은	허지유			트럼펫	이진규 이혜진 전해린			
비올라	노소희	안예림	윤소은	장윤정	트럼본	이윤호 이지우 김재원			
	조선유	홍진화			튜바	윤한빈			
첼로	이길재	김욱	이혜인	정다인	팀파니	남기랑			
	정혜솔	최영			퍼커션	김슬민 박정민 박정우 서준호 진민보			
더블베이스	고부현	조형욱	강선롤	박보경	크리에이티브팀	신현숙 고부현 구헌정 김소정 남기랑 유소정 이수민 이창훈			
	박혜란	이동규	이요한	장윤화					
플루트	김소희	조승연	조이삭						
피콜로	조이삭								
오보에	김소정	김준							

*약장 ※ 명단은 약장/수석/부수석 외에는 가나다순 정렬입니다.

지휘자

함신익



사명 의식이 깃든 지휘자 함신익

함신익의 고군분투는 실상은 예술을 접하는 유니크한 태도와 시선에 닿아 있다. 사춘기 시절, 인상 깊게 관찰한 선교사들의 행적이나 실향민인 부모로부터 받은 선한 영향력은 오늘의 함신익을 형성하는 데 소금 같은 역할을 한다. 가난하지만 신실했던 소년 시절의 경험은 그가 성장해 가며 생성된 보석 같은 사명 의식이 된다.

함신익은 한국에서의 학업과 군 복무 후, 미국 라이스대학교 이스트만 음악학교에서 지휘, 피아노, 성악, 이론 그리고 음악사를 배웠다. 그의 열정은 미국의 토양에서 발휘하게 되는데 재학시절 직접 구성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였고, 철학과 지휘 경험을 극대화하며 프로 지휘자로서 뻗어 나갈 수 있는 견고한 발판을 구축했다. 심지어 아스펜의 여름 음악캠프에서도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등 거침없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쏟아부었다.

30대 초반까지 함신익은 미국에서 학업에 열중하였고 이후 세계 지휘콩쿨에 입상하며 1992년부터 프로 지휘자로 데뷔했다. 미국의 그린베이 심포니, 에블린 필하모닉, 타스카루사 심포니, 밀부룩 오케스트라 등 중·소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며 '오케스트라 부흥사'라는 별명을 얻어가며 주목받는 지휘자로 성장했다.

37세부터는 예일대 지휘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3년간 후학양성에 몰두했다. 그가 키워낸 제자들은 유럽, 미국, 아시아의 중요한 오

함신익과 심포니송을 지켜본 사람들은 지난 10년을 '孤軍奮鬪(고군분투)'라고 표현한다. 고군분투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힘에 벅찬 일을 잘해 나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지휘자 함신익은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를 표방하며 매분 매초를 벅차게 10년을 살아냈기 때문이다.

케스트라의 지휘단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의 지도를 받은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세계 메이저 오케스트라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세계가 함께 즐기는 새로운 음악의 길 제시

지휘자 함신익은 대전시립교향악단(2001-2006)과 KBS교향악단(2010-2012)의 예술감독, 음악감독으로 한국 오케스트라의 중흥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세계 곳곳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그의 능력을 증명해 냈다. 뉴욕 카네기홀, 링컨센터, UN 본부, 암스테르담 콘세르트헤보우, 보스턴 심포니홀, 필라델피아 김멜센터, 스페인 빌바오, 말라가 심포니홀, 시애틀 베나로야홀, 볼티모어 마이어호프홀, 워싱턴DC 케네디센터, 독일 캄니츠 주립극장, 독일 북서 지방의 콘서트홀들,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브장송 오페라하우스, 아비뇽 오페라하우스, 헝가리 부다페스트 프란츠 리스트홀, 체코 프라하 드보르작 루돌피움, 스메타나홀, 베이징 국립대극장, 상하이 오페

라하우스, 도쿄 오페라시티홀, 오사카 심포니홀, 폴란드 바르샤바 심포니 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볼쇼이홀, 태국 방콕 마이돈홀, 몽골 울란바토르 국립극장 등과 그 밖의 많은 도시에서 순회연주를 하였거나 그곳의 오케스트라들과 협연하였다.

최근 행보는 브라질, 멕시코, 그리고 우루과이 등 남미의 오페라와 오케스트라로 이어지고 있다. 그의 전형적인 열정과 섬세한 지휘가 남미 연주자와 청중들에게 어필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2006년부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청두, 항저우, 구이양, 칭다오 등 중국 대도시의 오케스트라로부터 초청을 받고 있다. 최근 2024년 5월 10일, 쓰촨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쓰촨성 심포니홀 개관 공연을 선보였다. 쓰촨성 음악가협회 명예회장이자 유명 작곡가인 아오창쿤 교수는 "함신익 지휘자가 쓰촨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지휘하며 장엄한 추진력과 강한 예술적 매력으로 청중을 놀라게 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피아니스트 유영욱



심포니 송의 첫인상

유학시절부터 들어왔던 함신의 선생님의 명성 때문인지 지휘하시는 오케스트라에서도 엄청난 진지함과 열정이 묻어나는 느낌이었습다. 첫 리허설에서는 아무래도 함신의 선생님의 카리스마에 받은 영향도 컸겠지만 그 후 수많은 연습과 공연을 함께 하며 느꼈던 것은 역시 첫인상이 틀리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오케스트라는 지휘자의 색깔과 성향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베토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데,

이 다음으로 얻고 싶은 칭호가 있는지

칭호라는 것이 생기면 싫던중던 제가 충족시켜야할 기대감이 생기기 에 항상 반가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뭔가를 꼽자면 요즘 심포니송과 라흐마니노프를 많이 연주하다보니 그의 음악과 인생에 점점 깊게 공감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이번 연주에 있어서 ‘한국의 라흐마니노프’가 된 마음으로 임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심포니 송과의 협연에 대한 기대와 준비

이번에 연주하게 된 협주곡 4번은 함신의 선생님의 권유로 익히게 된 곡인데 아마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과연 익힐 일이 있었을까 싶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라흐마니노프는 원래도 좋아하는 작곡가였지만 나이가 들며 더욱 매력을 느끼는 편인데 이 곡은 그의 말년 작품인 만큼 더없는 원숙미와 더불어 놓치기 쉬운 미묘한 감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곡은 진지한 음악가들과 함께 연구하고 교감하며 본연의 표현을 찾아가야 하는데 함신의 선생님과 심포니송은 그 여정을 함께 할 둘도 없는 파트너라 이번 연주가 정말 기대되고 설립니다.

앞으로의 연주 계획

올해는 여러 시대를 골고루 협연할 수 있어 기뻐는데 굳이 모짜르트 협주곡 23번을 협연하고 연말에는 베토벤의 트리플 협주곡도 협연합니다. 오늘 협연할 4번을 포함해 모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곡들이라 정말 한 해를 행복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한국의 베토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유영욱은 10세 때 자신의 작품 발표회를 가질 정도로 작곡에까지 놀라운 재능을 보이며 어릴 적부터 국내 언론의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는 줄리어드 음대에 입학 후 학부과정을 통해 Martin Canin, Jerome Lowenthal 교수에게 사사하고, 맨해튼 음대에서 석사과정을 밟으며 Solomon Mikowsky 교수에게 사사했다. 1998년 제 13회 스페인 산탄데르 국제 피아노 콩쿠르 (Paloma O'shea Santander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에서 만장일치로 대상을 수상하며 유영욱은 4만 유로의 상금과 세계 20여 개국을 아우르는 콘서트 투

어, Naxos와의 리코딩 계약 등을 부상으로 받게 된다. 그 후 무려 300회가 넘는 해외 연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그는 모스크바의 Richter Competition, 포르투갈의 Vianna da Motta Competition, 미국의 International E.Competition 등에서도 수상하며 국제적 연주자로 자리 매김 했다. 2007년에는 베토벤의 고향 독일 본에서 열린 국제 베토벤 피아노 콩쿠르 (International Beethoven Competition for Piano in Bonn) 에서 “베토벤이 피아노를 친다면 유영욱처럼 연주했을 것이다” 라는 심사위원의 극찬을 받으며 우승했다.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스페인 국립 오케스

트라, 드레스덴 심포니 등 세계 유수의 교향악단 및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코리안 심포니 등 국내 주요 교향악단과 협연했으며, 뉴욕의 카네기홀, 런던의 Wigmore Hall, 라이프지히의 게반트하우스 등 세계 유수의 홀 및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성남아트센터 등 국내 주요 홀에서 연주했다.

2008년 귀국 후 같은 해 6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의 단독 리사이틀로 고국의 클래식 팬들에게 첫 인사를 한 바 있으며, 국내 첫 앨범인 [BEETHOVEN 32]를 발매했다. 2009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임용된 후 후학 양성에도 함께 열정을 쏟고 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4번

Rachmaninoff Piano Concerto No. 4 in g minor, Op. 40

감춰진 보화

러시아가 낳은 위대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Sergei Rachmaninoff, 1873~1943). 귀족 출신이자 부유한 사회 계층에 있었던 그는 러시아 혁명의 무자비한 탄압을 피하기 위해 1918년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는데 이후 1926년 피아노 협주곡 제4번을 작곡하게 된다. 이곡은 미국 정착 후 완성된 그의 첫 작품이자 최후의 피아노 협주곡이다. 세간에 알려진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 5번은 러시아 출신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워런베르크(Alexander Warenberg, 1952~)가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제 2번을 편곡한 것이다. 스케치는 1914년부터 이루어졌는데 초연(1차 버전)이 실패하자, 1928년(2차 버전)에 전반적으로 수정되었고 계속해서 성과가 없자 결국 그는 작품을 철회한다. 1941년에 오케스트레이션의 대폭적인 수정 이후 정식으로 출판되고 2차 버전은 2000년 라흐마니노프 에스테이트(Rachmaninoff Estate: 라흐마니노프 손자에 의해 2000년에 세워진 스위스에 위치한 기념 사업회, 일명 Villa Senar라고 불린다.)에 의해 출판 및 발표된다.

당시 세계는 제 1차 세계대전(1915~1918)의 여파로 예술, 정치, 철학, 종교 등 거의 모든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음악에 있어 서정성 가득한 낭만주의는 피폐하고 무자비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낡고 진부한 것으로 치부되기 시작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전통을 탈피하고 파격을 추구하는 모더니즘을 향하고 있었다. 이는 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무조주의와 전위예술(前衛藝術)로까지 발전한다. 낭만주의 음악을 사랑하고 평생 그 장르에 매진하였던 중년의 작곡가 라흐마니노프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나는 내 옛 작곡법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새로운 작곡법을 익히지도 못하겠다.

나는 외계인에게 점령당한 세상을 떠도는 유령과도 같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25년간 그는 고작 6곡만 작곡하게 된다. 이는 핀란드의 작곡가 시벨리우스(Jean Sibelius, 1865~1957)의 경우와도 유사한데 시벨리우스는 그의 교향곡 4번에서 무조주의적 모더니즘을 시도하지만 이내 접고 낭만주의로 돌아가 작품 활동을 하다가 결국 작곡을 전면적으로 접게 된다. 그의 거의 모든 작품은 1925년 이전의 것들이다. 라흐마니노프의 세 개의 피아노 협주곡과 교향곡 2번 등 다수의 유명한 작품들은 모두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작곡된 것이며 후기 낭만주의의 전형을 따르고 있다. 그는 미국 망명을 기점으로 약 10여 년간 어떤 작곡활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스위스 별장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 유럽 낭만주의 음악의 화려했던 추억을 상기하게 되었고 이에 영감을 얻어 피아노 협주곡 4번에 착수하게 된다. 라흐마니노프는 이 곡에서 재즈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인용하였는데 이는 장르의 근간이 되는 요소나 핵심적인 작곡기법의 수용이라기보다는 몇몇 화성진행과 동기의 인용정도에 그치고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당시 대세였던 무조주의나 아방가르드적인 파격의 요소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잊히고 숨겨진 보물 낭만주의 음악의 르네상스를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27년 작곡가 본인의 솔로 연주로 필라델피아에서 초연(Leopold Stokowski(1882~1977) 지휘)되었으며 친구이자 작곡가였던 니콜라이 메트네르(Nikolai Mdetner, 1880~1951)에게 헌정되었고, 그는 다음 해에 라흐마니노프에게 그의 두 번째 피아노 협주곡을 헌정했다.

1악장 — Allegro vivace

곡은 소나타 형식으로 구성되며 즉흥 발라드 스타일이 가미되어 있다. 재즈 연주회장에서 곡 사이에 즉흥으로 연주되는 interlude처럼 곡은 유연하게 시작된다. 강렬한 오케스트라 합주 이후 독주자는 악장의 주요 주제를 연주하며 영웅적으로 등장한다. 주제는 상승하는 음계로 시작하였다가 투쟁에 지친 듯 힘을 잃고 내려온다. 감정의 기복을 그리는 이러한 상승과 하강의 주제는 그의 대부분의 협주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Rachmaninoff Piano Concerto No. 4 in g minor, Op. 40

Piano Concerto No. 4 in g minor, Op. 40 by Sergei Rachmaninoff (1873~1943) was completed in 1926 and has three versions. After an unsuccessful premiere, Rachmaninoff revised and published a second version in 1928. He later withdrew the piece due to poor reception, revised it again focusing orchestration, and republished it in 1941, which is the most commonly performed version today. The original manuscript was published in 2000. The work is dedicated to Nikolai Medtner (1880~1951), who reciprocated the gesture by dedicating his Second Piano Concerto to Rachmaninoff.

In the first movement, a powerful orchestral crescendo introduces the soloist with a theme that ascends, then weakens, emphasizing the contrast between rising and falling melodies. This duality is a key throughout. The second theme, introduced by an English horn, features delicate, falling arabesques for solo piano, later joined by the strings. The development explores the main theme's descending lines, alternating with piano passages and rising motifs, building to an intense climax. As the themes



[1악장 제 1주제]

주제는 그의 피아노 협주곡 제 2번의 주요 주제와 닮아 있는데 이는 복잡해진 사색 가운데 화려했던 낭만주의 음악과 그 시대를 회상하는 작곡가 자신의 모습을 반영한다. 전반적으로 앞선 협주곡에 비해 더욱 세련된 화성(13,15화성과 복화음)과 반음계가 빈번하게 사용된다.

독주 목관악기들이 피아노를 기묘하면서도 아름다운 전환부로 이끌고, 잉글리시 호른이 다가올 두 번째 주제에 대한 복선(伏線)처럼 음악적 예감을 암시하며 분위기를 진정시킨다. 두 번째 주제는 섬세한 하강형 아라베스크로 구성된 독주 피아노의 선율이다.



[1악장 제 2주제]

점차적으로 현악기가 이 낭만적인 주제에서 독주자와 합류하며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다가 불현듯 음악이 더욱 불안해지다가 독주자의 화려한 기교로 소용돌이친다. 악장의 전개부는 현악기에서 메인 주제의 하강하는 음형이 다시 등장하면서 시작된다. 이는 피아노 패시지와 교대로 나타나며, 독주자는 상승 모티브의 불길한 모습을 연주한다. 매우 길고 강렬한 낭만주의적 패시지로 마침내 긴장감이 절정에 달한다. 이 강렬한 구간이 가라앉으며 악장의 주요 주제가 역순으로 등장하고, 상승 모티브와 교대로 독주 피아노의 반주 위로 플루트와 오보에가 섬세한 제 2 주제를 연주한다. 다시 선보이는 낭만주의적 극적 고조 주요 주제의 재현을 다시 기대하게 하지만, 대신 주제는 바이올린에서 몽환적이고 애뜻한 느낌으로 변해 서글프고 아쉬운 마음을 대변한다. 작품의 시작에서 느껴졌던 격정적인 상승의 분위기는 짧은 코다에서 잠깐 비친 뒤, 악장을 갑작스럽게 끝낸다.

2악장 — Largo

세도막 형식으로 멜랑콜리(melancholy)하고 내면적인(introspective) 분위기가 도시의 밤에 비친 듯 어울린다. 파가니니 변주와 다른 피아노 협주곡에서의 동기들이 여전히 주요하게 인용되는 가운데 재즈의 몇몇 요소가 추가되었다. 라흐마니노프는 모더니즘의 파격(破格)은 배척하였지만 재즈 음악에는 달랐다. Paul Whiteman(밴드음악가, 1890~1967)을 추앙하였고 거슈윈(George Gershwin, 1898~1937)의 “Rhapsody in Blue”를 무척 좋아했다. 이 곡에서는 거슈윈의 1919년 작 “자장가”에서의 주제를 인용하였으며 심플하게 피아노를 기술하는 그의 작곡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피아노 독주로 시작되며, 1악장의 서두부와 유사하게 마치 즉흥적으로 악장 간 연결을 연주하는 듯한 패시지가 이어진다. 이후 바이올린이 이 악장의 주요 주제를 소개하는데, 이는 세 개의 하강 음을 기초로 재즈화성과 느린 워킹베이스(Walking Bass)가 가미된 형태이다.



[2악장 주요 주제]

시종일관 음악은 마치 즉흥 연주처럼 진행되며, 이 단순한 동기가 명상 음악처럼 다뤄진다. 악장 내내 독주자와 오케스트라는 이 주요 동기를 변주해 나가는데 마치 재즈 음악가들의 “Jam Session(재즈 연주자들이 악보 없이 하는 즉흥연주)”과 유사해 보인다. 악장 중반부에서 이 환상곡의 부드러운 멜랑콜리가 폭력적인 과격함 음형에 의해 중단된다. 피아노는 Cantabile e tranquillo(“노래하듯이 그리고 평온하게”)로 응답하며 상승하는 모

return, the music becomes dreamy before ending with a brief, intense coda. The second movement opens with an improvisatory piano introduction, followed by a simple, descending violin melody. The music meditates on this theme, with the soloist and orchestra offering variations reminiscent of jazz improvisation. Midway, a violent episode interrupts the gentle mood, but the piano responds with a peaceful, rising motif, which returns to the main idea before fading away. The third movement begins abruptly with a cymbal crash and a lively, carnival-like theme. The orchestra soon joins in with variations on this energetic melody. A fanfare-like piano motif introduces a warm, rising theme, followed by hesitant piano responses. The orchestra takes over, developing the main theme while the piano adds descending scales. The concerto builds to a climax with ideas from the first movement, finally ending with powerful, yet ambiguous, chords.

티브를 연주하지만 이 모티브는 등장할 때마다 한 단계씩 하강한다. 주요 주제가 재현되고 악장은 서서히 잠잠해진다.

3악장 — Allegro vivace

자유로운 랩소디 풍의 악장으로 타악기의 다채로운 사용이 돋보인다. 전 악장과 중단 없이 충격적인 심벌즈 소리로 시작된다. 곧이어 독주자는 격렬하고 카니발 같은 주제를 시작하며, 이 주제는 하강하는 율곡을 가진다.



[3악장 주요 주제]

곧 오케스트라가 합류하여 서커스 같은 이 멜로디의 변주를 연주하며, 음악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 듯 경쾌하다. 짧지만 다채로운 전환부가 나타나며 피아노에서 더욱 확고하고 영웅적인 팡파르 모티브가 등장하기도 한다. 솔로 호른의 따뜻한 상승 주제에 피아노가 응답하고 이어 팡파르가 찬란했던 낭만주의를 기억하게 한다. 전개부에서 오케스트라는 독주자와의 대화를 방해하듯 서커스 같은 주요 주제를 반복하지만 피아노는 하강 음계를 연주하며 신비로운 꿈의 세계 즉 낭만주의의 과거로 우리를 이끈다. 피아노의 화려한 연주가 끝난 후 음악은 완전히 멈추지만, 오케스트라가 서커스 같은 주요 주제의 불안한 단편들을 연주하면서 이 꿈에서 깨어난다. 점차적으로 첫 번째 악장의 주제들이 회상되고 나면 1악장 도입부에 다시 다다르게 된다. 마침내 음악은 첫 번째 악장에서 절정을 이루었던 그 강렬한 음악의 재현에 이르고 이내 해체되면서 피아니스트의 화려한 기교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Rachmaninoff Symphony No. 2 in e minor, Op. 27

20대의 젊은 라흐마니노프는 당시 러시아와 유럽 각지에서 뛰어난 연주자 및 지휘자로서 명성을 날렸지만 작곡가로서 그저 피아노만 잘 연주하는 미숙한 작곡가라는 오명이 따를 만큼 실력이 좋지 못하였다. 특히 큰 기대를 품고 발표하였던 교향곡 1번(1897년 작)이 실제로 끝나 비평가들과 대중으로부터의 쓰디 쓴 시선을 받아야 했고 이는 그를 심각한 우울증에 빠트리게 된다. 더욱이 아버지의 도박과 잦은 외도로 인해 무너져버린 가정 환경은 그를 심각한 알코올 중독으로 내몰아 수년간 어둠속에 속박(束縛)시켰다. 그는 결국 작곡을 포기하게 되었으며 연주자로서의 품질 또한 형편없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가 평소 대단히 존경하던 대문호(大文豪) 톨스토이(Leo Tolstoy, 1828~1910)에게 자신의 노래를 선사하였으나 감당하기 힘든 치욕스런 혹평을 받아 상황은 더 안 좋아졌고 급기야 수전증(手顫症)으로 말미암아 피아니스트로서의 경력 또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였다. 극도의 신경쇠약 및 대인 기피증마저 앓게 된 라흐마니노프는 정신과를 찾게 되었고 니콜라이 달(Nikolai Vladimirovich Dahl, 1860~1939)을 만나게 된다. 음악 애호가이자 최면요법의 대가였던 니콜라이는 그를 헌신적으로 치료하였으며 1901년 4월 라흐마니노프는 마침내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는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써 니콜라이에게 헌정하였는데 이 곡이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두면서 작곡가로서 입지를 굳힐 수 있게 되었다. 1902년 사촌 나탈리아(Natalia Alexantrovna Satina, 1877~1951)와 결혼하게 되면서 비교적 행복한 날을 보내게 되는데 이곡은 바로 이 시기인 1907년에 작곡된 작품이다. 당시 러시아는 ‘피의 일요일’로 시작된 제 1차 러시아 혁명의 어지러운 정치적 상황에 있었는데 1906년 봄, 귀족이자 지주였던 라흐마니노프는 결국 가족과 함께 러시아를 잠시 떠나기로 한다. 이탈리아를 거쳐 독일 드레스덴에서 3년을 지내게 되는데 여기서 그는 작곡에 매진하여 수많은 명작을 쓰게 된다. 교향곡 제2번을 필두로 피아노 소

Rachmaninoff Symphony No. 2 in e minor, Op. 27

Symphony No. 2 in e minor, Op. 27 by Sergei Rachmaninoff was written between 1906 and 1907 and premiered in 1908, conducted by the composer. Lasting around 60 minutes uncut, the symphony is dedicated to composer Sergei Taneyev (1856~1915)and is one of Rachmaninoff's most celebrated works.

The first movement begins with a slow introduction led by cellos and basses, featuring Rachmaninoff's Romantic style and echoes of Russian Orthodox music. The movement builds with

나타 제1번, 교향시 “망자의 섬”, 미국 순회연주를 위해 준비한 피아노 협주곡 제3번 등을 완성했다. 그 중에서도 교향곡 제2번의 의미는 각별했다. 라흐마니노프 식 낭만주의 음악의 절정을 이루었다고 평가받는 곡으로 그를 작곡 불가능 상태에까지 빠지게 만들었던 교향곡 제1번의 실패 이후 실로 10여년 만에 재도전한 ‘교향곡’이 었기 때문이다. 이 곡으로 피아노 협주곡 제2번 이후 다시 한 번 글린카의 영예를 차지하게 되어, 그는 명실상부 차이콥스키의 후계자이자 러시아를 대표하는 교향곡 작곡가의 반열에 올랐던 것이다.

초연은 곡을 완성한 이듬해인 1908년 1월 27일 러시아의 페테르스부르크(Petersburg)의 마린스키 극장에서 작곡가 본인의 지휘로 이루어졌으며,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제자이자, 라흐마니노프 본인의 스승인 타네예프(Sergey Ivanovich Taneyev, 1856~1915)에게 헌정되었다.

1악장 — Largo - Allegro moderato

소나타 형식의 악장으로 차분하면서도 음울한 러시아 정교회 (Russian Orthodox) 성가 풍의 도입부로 시작된다. 이 악장의 사색적이면서도 매혹적인 도입부는 라흐마니노프의 풍부한 낭만주의적 작곡 스타일을 잘 보여 준다. 이 주제는 장장 한 시간에 걸친 방대한 길이의 교향곡의 초석에 해당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첫머리에서 첼로와 베이스로부터 흘러나오는 동기 주제가 악장 중간 중간에 다시 등장해서 클라이막스의 구축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이후의 주제들에 영향을 미친다.



[1악장 도입부 베이스 주제]

제시부에서는 바이올린에 의한 제 1주제가 소개되고 이내 확대, 발전된다.



[1악장 제 1주제 동기]

이에 상응하는 감미로운 클라리넷 독주가 나타나면 목관과 현에 의해 등장하는 서정적인 제 2주제가 아름답다. 제 1주제에서 파생된 형태이다. 발전부로 진행되면서 잉글리시 혼에 의해 제 1주제가 변주되고 이것이 고조되는 가운데 금관이 멋진 팡파르를 연주한다. 분위기가 고조되어 클라이막스를 이루면 제시부의 두 주제가 열정적인 러시아식 제창으로 전개된 뒤 도입부의 바이올린 동기를 소재로 한 코다가 악장을 마무리 짓는다.

2악장 — Allegro molto

현이 새기는 경쾌한 말발굽 (galloping) 리듬 위에서 영웅적인 모습의 호른이 등장하는데 이 Dies Irae 동기는 악장을 통틀어 여러 차례 중요하게 반복된다. 이는 1악장 도입부에 이어 러시아 정교회와 관련된 상징성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2악장 Dies Irae 동기]

rich orchestration, and brass adds depth. The movement concludes with an unresolved feeling, ending with a powerful chord from the lower strings. The second movement starts in A minor, showcasing a persistent motif in the upper strings. The horns reference the “Dies Irae” theme, symbolizing judgment and religion. The movement features lively fugal writing and shifts between energetic and lyrical themes. It ends quietly with violins repeating a fading motif. The third movement offers a calmer mood, opening with a delicate violin phrase, later passed to the clarinet. The clarinet develops the melody without repetition, with the violins taking over and building to a C major climax. The movement’s three-part structure includes a string and clarinet introduction, orchestral development, and a final section after a brief pause. The movement ends in a tranquil, emotional atmosphere. The finale shifts to E major, opening with a bold fanfare. This finale blends march-like rhythms with lyrical passages, referencing themes from previous movements. The triumphant recapitulation builds to an emphatic coda, led by strings and percussion, ending the symphony with a powerful, victorious flourish.

보다 서정적인 구간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솔로 클라리넷이 거의 자유로운 박자로 연주하는 8분 음표 동기를 통해 들리며, 이로써 악장의 중반부로 이동하게 된다. 론도 형식의 트리오 부분의 불협화음 음형이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여기서 라흐마니노프의 인상적이며 독특한 푸가(Fuge) 작곡 기법을 볼 수 있다. 이 악장은 기본적으로 스케르초 형식으로, ABACABA 형식을 따르며, 중앙 C 부분이 이 악장의 핵심을 이룬다. 마지막 구간에서는 금관악기의 코랄이 들리며, 이는 라흐마니노프가 사랑했던 러시아 정교회 음악과 디에스 이레 주제와 연결된다. 이러한 주제들의 재현은 교향곡 전체에 깊은 인상을 남긴다. 첫 번째 악장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악장도 조용히 끝나며, 바이올린은 반복되는 모티브를 연주하다가 점점 간격이 넓어진다.

3악장 — Adagio

매우 강렬한 폭풍 같은 두 개의 악장 이후 등장하는 세 번째 악장의 아름다운 주요 주제는 형언할 수 없는 서정성을 제공한다. 이는 전체 4개의 악장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악장으로 <피아노 협주곡 2번>의 느린 악장에서와 유사하게 라흐마니노프 특유의 풍부한 감수성을 느낄 수 있다.



[3악장 주요 주제]

선율의 아름다움이 단연 압도적이다. 이후 클라리넷 독주를 통해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두 번째 선율이 현악기의 풍성한 음색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이 선율은 1악장의 앞부분에 나왔던 주제와 긴밀히 연관되며, 그 선율은 악장 뒷부분에 원형으로 제시된다.



[3악장 클라리넷 솔로 주제]

이 주제는 한 음(E)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음이 오케스트라의 ‘중심 음’으로 작용한다. 라흐마니노프의 랩소디적인 표현은 이 악장에서 더욱 강조되며,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현악기의 도입과 클라리넷 솔로를 포함한다. 두 번째는 솔로 후 오케스트라가 주요 주제를 받아들여 C장조에서 압도적인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며, 세 번째 구간은 잠깐의 침묵 후 시작되는 절정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한 구간이다. 변형된 세 도막 형식위에 주제가 자유롭게 배치되어 랩소디의 전형을 잘 보여준다.

4악장 — Allegro Vivace

전체 오케스트라가 빠른 3연음부 리듬의 강력하고 힘찬 팡파르를 연주하며 행진곡 풍의 경쾌함을 노래한다. 이후 첼로, 베이스의 피치카토로 탈바꿈한 Dies Irae 동기가 회상된다. 첫 번째 및 두 번째 악장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악장은 빠르고 서정적인 구간을 자주 넘나들며, 주제의 다양한 변주를 선보인다. 현의 열정적인 제창이 감동적인 가운데 재현부에서는 모든 악장의 주제가 재현되어 만족감을 안겨준다. 감격스러운 코다는 세 번째 악장의 영향이 크며, 풍부한 현악기의 음형은 교향곡의 절정을 향해 내달린다. 트럼펫과 타악기가 들어와 마지막의 폭풍을 암시하며, 곧 오케스트라 전체가 강렬한 연주로 폭발하며 승리를 선언하는데 이는 마치 교향곡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하는 듯하다.

과거의 문화가 무시당하고, 상대주의가 만연해 절대적 가치가 사라져버린 안타까운 시대에 오늘의 심포니 송연주회가 갖는 의미는 크다. 버리지 말아야 할 소중한 보물.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4번과 교향곡 2번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낭만주의 선율은 음악적 미를 넘어서 시대적 방향성에 대한 제동을 걸어주고 있으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제언이기도 하다.

글 작곡가, 지휘자 박희정

PONGSAN과 함께하는
합신악 오케스트라·심포니 송
2024 마스터즈 시리즈 IX

함신이
ORCHESTRA

SCHUBERT and BRAHMS

슈베르트와 브람스

슈베르트 | 교향곡 제4번 '비극적'
Schubert | Symphony No. 4 in c minor 'Tragic'

브람스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Brahms | Piano Concerto No. 1 in d minor

11.28

THU 7:30PM



피아노 박종해

피아노 한건연

SEBONG DSK와 함께하는
합신악 오케스트라·심포니 송
2024 마스터즈 시리즈 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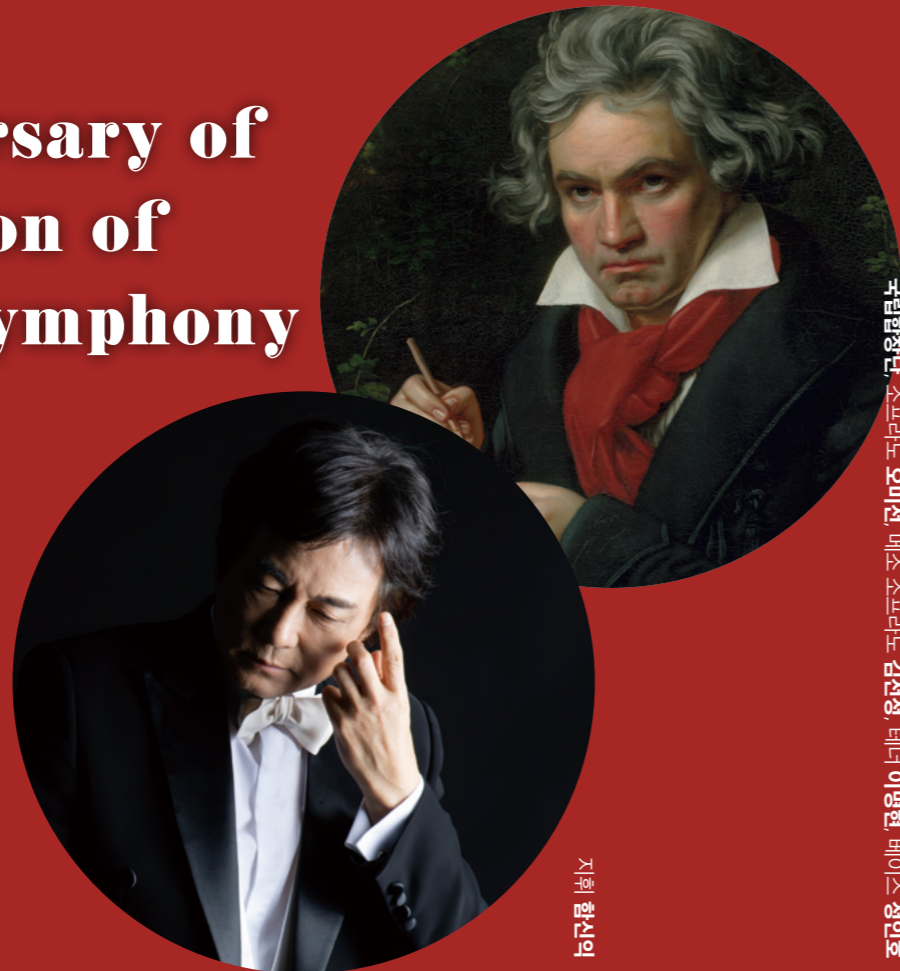
200th Anniversary of the Composition of the 'Choral' Symphony

송년음악회
베도벤 합창교향곡 작곡
200주년 기념 연주

베도벤 | 교향곡 제9번 '합창'
Beethoven | Symphony
No. 9 in d minor 'Choral'

1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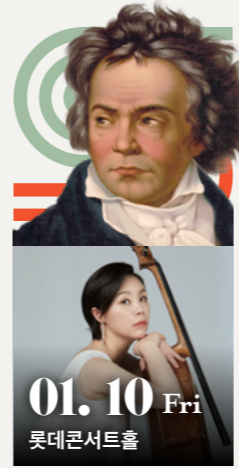
FRI 7:30PM



국립합창단, 소프라노 오미자, 메조 소프라노 김선정, 테너 이명현, 베이스 정인호

지휘 한건연

Mozart Flute Concer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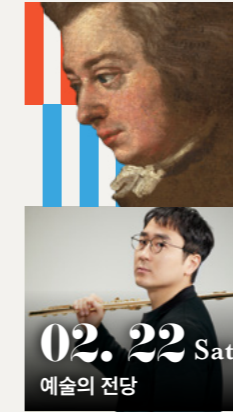
01.10 Fri
롯데콘서트홀

신년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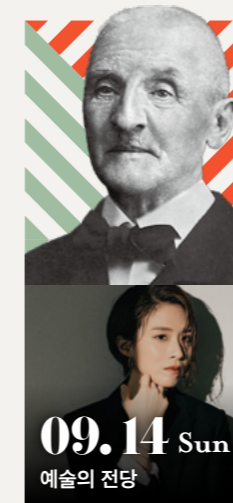
Beethoven
Prometheus Overture

Dvorak
Cello Concerto,
op.104, b minor
김민지(cello)

Beethoven
Symphony No.5, op.67,
c minor



02.22 Sat
예술의 전당



09.14 Sun
예술의 전당

Beethoven & Bruckner

Beethoven
Piano Concerto No.3,
op.37, c minor
김규연(pia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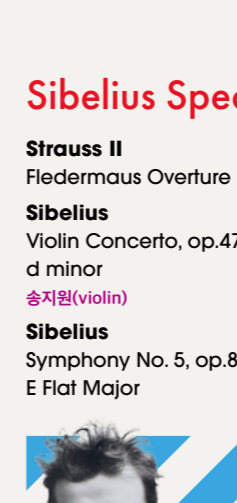
Bruckner
Symphony No. 1, c minor



03.13 Thu
롯데콘서트홀

Mahler 9

Mahler
Symphony No. 9, D Major



09.14 Sun
예술의 전당

Sibelius Special

Strauss II
Fledermaus Overture

Sibelius
Violin Concerto, op.47,
d minor
송지원(violin)

Sibelius
Symphony No. 5, op.82,
E Flat Major



04.24 Thu
롯데콘서트홀

Welcoming Spring

Cindy Cox
Dreaming
a World's Edge (2022)
아시아 초연

Elgar
Cello Concerto, op. 85,
e minor
Jiapeng Nie(Cello)

Schumann
Symphony No.1 'Spring'
op.38, B Flat Major



11.22 Sat
롯데콘서트홀

Sir Stephen Hough Plays Grieg and Stephen Hough

스티븐 허프가 초연하는
스티븐 허프 피아노협주곡

Hough
AGATA a Basque Fantasy
for Orchestra

Grieg
Piano Concerto, op.16,
a minor

Hough
Piano Concerto
세계 초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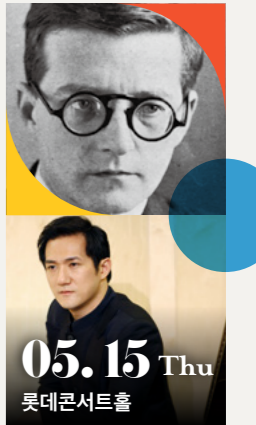
Remembrance Ravel and Shostakovich

Mozart
Piano Concerto No.21,
K.467, C Major
유영욱(piano)

Ravel
Le Tombeau de Couperin

Shostakovich
Piano Concerto No.1, op.35
유영욱(piano)

Ginastera
Variaciones Concertantes



05.15 Thu
롯데콘서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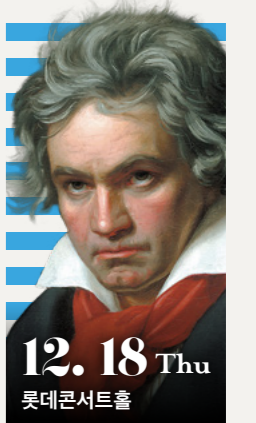
송년음악회

Corelli
Concerto Grosso op.6, No.8,
g minor (Christmas concerto)

Bach
Christmas Oratorio
BWV 248, Part 1

Beethoven
Symphony No.9, op.125,
d minor 'Choral'

김순영(소프라노),
김선정(메조소프라노), 이명현(테너),
정인호(베이스), 인천시립합창단



12.18 Thu
롯데콘서트홀

회원권 구매 특별할인

Season Pass
Special Discount



시즌패스 Season Pass

조기구매할인혜택

구분	티켓	회수	원가	할인 후 가격
10월 31일까지 구매시	VIP석	10회	1,200,000원	840,000원
	R석	10회	1,000,000원	700,000원
	S석	10회	700,000원	490,000원
	A석	10회	500,000원	350,000원
11월 31일까지 구매시	VIP석	10회	1,200,000원	900,000원
	R석	10회	1,000,000원	750,000원
	S석	10회	700,000원	525,000원
	A석	10회	500,000원	375,000원
12월 31일까지 구매시	VIP석	10회	1,200,000원	960,000원
	R석	10회	1,000,000원	800,000원
	S석	10회	700,000원	560,000원
	A석	10회	500,000원	400,000원
학생 특별 지원 할인	A석	10회	500,000원	200,000원
	B석	10회	300,000원	100,000원

티켓 구매 요령

전화 구매
02-549-0046

e-mail
management@symphonysong.com

우편 제출
서울 서대문구 백련사길 39 (홍은동,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3층 심포니송

시즌패스

성명	연락처	E-mail
등급	수령 방식	

R석 현장수령(추천)
 S석 자택 또는 회사 주소
 A석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6-49104 (심포니송)



심포니 S.O.N.G 법인 / 개인후원 안내



구분	연회비	예우 및 혜택	공통예우
마에스트로	3억원 이상	기업연주* 6회 제공 2024시즌패스 - R석 40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명단 게재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마스터즈	1억원 이상	기업연주* 2회 제공 2024시즌패스 - R석 30매 증정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 마에스트로 함신익 기업방문강연 - 마스터즈 시리즈 프로그램 북 전면광고 - 추가구매티켓 10%할인
말러	5000만원 이상	기업연주* 1회 제공 2024시즌패스 - R석 20매 증정	*기업연주: 심포니 S.O.N.G의 실내악 그룹이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연주
브람스	3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2회 제공 2024년 시즌패스 - R석 12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명단 게재
브루크너	2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1회 제공 2024년 시즌패스 - R석 8매 증정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 추가구매티켓 10%할인
슈베르트	1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1회 제공 2024년 시즌패스 - R석 4매 증정	* 하이든은 제외
베토벤	500만원 이상	2024년 시즌패스 - R석 2매 증정	
쇼팽	300만원 이상	2024년 시즌패스 - S석 2매 증정	
모차르트	100만원 이상	2024년 시즌패스 4회 - A석 2매 증정	
하이든	1만원 이상		

문의 심포니 S.O.N.G 경영지원팀 02)549-0046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4-73904 (예금주: 심포니송)

후원회 수시 가입 가능

후원금액은 월 1만원부터 매월 분할 자동이체 납부가능
후원금에 대한 개인 소득공제 및 법인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기후원

(자동이체로 더 편리해진 후원)

심포니 송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2024 시즌 후원 회원 모집



목표회원: 100명

후원 회원에게 드리는 혜택

마스터즈 시리즈 티켓 할인 (10%) *회한

매달 활동사항과 공연정보 제공

오픈 리허설 참관특혜

연 2회 살롱 콘서트 초청

예술감독과의 연례 대화



'Melodia' 법인 후원약정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Mobile	
	E-mail	
	※ 월기부금액 / 매월 25일 자동이체	
약 정 금 액	□ _____ 원	
	□ 50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10만원 □ 5만원 □ 3만원 □ 1만원	
일 시 납	일시납 _____ 원 ※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자 동 이 체 은 행 정 보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동의함

동의안함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거부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아래 란을 채워주십시오

개인

또는

법인

약정금액 _____

성 명 _____

연 락 처 _____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 ※ 신청방법 : 약정서 작성 후 하단의 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심포니 송 전화번호 : 02-549-0046 이메일 : management@symphonysong.com
- ※ 심포니 송 후원자는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후원해 주신 모든 금액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이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자신감,
삶에 대한
자신감

성형 MOLDING

피부 SKIN

메디스파 MEDISPA

비만 OBESITY

두피 SCALP

항노화 ANTI-AGING

지방성형 A FATTY MOLDING

성의학클리닉 A SEX CLINIC

세포재생전문클리닉 CELL REGENERATION CLI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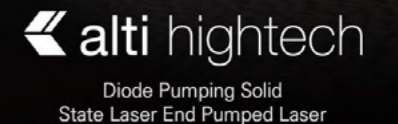
L
A
H
Y
E
O
N

Tel. 02.3445.1155 Fax. 02-3446-6885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3(도산대로 420) 청담스퀘어 5층

... FA & BIO분야 ...

글로벌 종합 기술기업

이차전지장비, 디스플레이장비, 리니어시스템, 물류자동화 로봇, 산업용 및 의료용 레이저
대한민국 장비산업분야 및 바이오 보툴리눔독소제제 미래에 새로운 기준을 만듭니다.



GLOBAL GOLF PLATFORM COMPANY GOLFZON NEWDIN GROUP

골프존뉴딘그룹은
'새로움과 즐거움, 유익함의 창출'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글로벌 골프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웃·사회와 함께 동행하며
늘 새로운 골프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GOLFZON NEWDIN GROUP



영 유아를 위한 수제작 토퍼 매트리스

3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가
한 땀 한 땀 탄탄한 토퍼를 제작해 드립니다.
(맞춤제작 가능)

영 유아용 KC 인증 및 모든 안전 검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새로운 커피 습관 : 언더프레셔

언더프레셔의 다양한 홈카페 컬렉션 제품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스페셜티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MARKET Kurly **coupang** **NAVER** 에서 언더프레셔를 검색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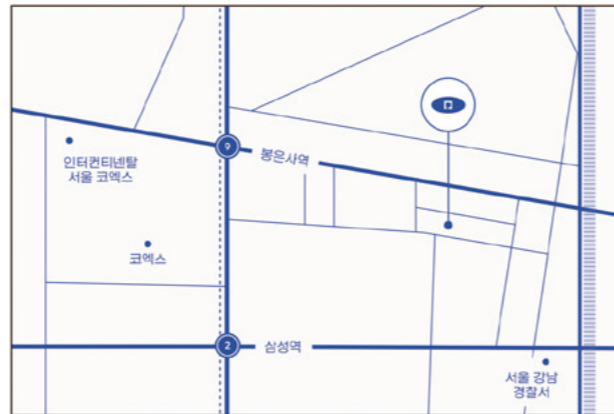


OFFLINE SHOP



<언더프레셔 삼성점>

맛있는 커피와 함께하는 특별한 휴식을 경험해보세요.
www.underpressure.co.kr



<찾아오시는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37, 1층(삼성동)
☎ 82 (0)2 2019 8990

Wizard7

최적의 사이트 구축·운영·관리를 제공합니다!



풍부한 기능 탑재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각종 OS·DB·브라우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본기능

- HTML5(웹표준)
- 반응형웹 대응
- WYSIWYG 에디터
- 편집 모드/사용자 모드
- 강력한 권한 설정
- 파일관리
- 웹 접근성
- 다국어 지원
- 높은 보안
- 메뉴 관리
- 백업/복구
- 워크플로우

※기본 기능의 일부를 기재

모듈 필요한 기능을 선택하여 자유자재로 사이트 구축

- 게시판/뉴스
- 이미지 슬라이드
- 인물 소개
- 폼빌더
- 일정관리
- 규정관리
- 연혁 관리
- 회원정보 수정

※상기 외 모듈의 다양한 기능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홈페이지를 위한 추가 솔루션

S3 : eBMS
간행물 e북화 통합관리 솔루션

S3 : HTML Converter
첨부파일 바로보기 솔루션